

글로벌텍스프리 (204620)

기업 탐방노트 | Mid-Small Cap

NR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4,275 원
시가총액	1,593 억원
KOSDAQ (6/10)	721.14 pt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Analyst 김한경 _ 02 3779 8848 _ hkkim@ebestsec.co.kr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Stock Data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23.44 억원
외국인 지분율	5.8%
절대수익률 (YTD)	23.0%
상대수익률 (YTD)	16.2%
배당수익률 (19E)	0.0%

재무데이터 (IFRS 연결기준)

(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23.3	41.2	33.0	41.5
영업이익	1.9	7.8	0.8	0.7
순이익	1.2	2.2	-2.4	8.4
ROE (%)	14.0	7.2	-4.2	12.1
PER (x)	N/A	N/A	N/A	15.3
PBR (x)	N/A	N/A	2.3	1.6

자료: 글로벌텍스프리,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

Stock Price



국내 1위 Tax Refund 회사

글로벌텍스프리는 국내 1위 Tax Refund 회사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국내 점유율은 60%로 추정되며 국내 1.1만개의 기맹 점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수익 모델은 환급 대행 수수료 수익이며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약 30%를 수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출국장에서 타사업자로부터 환급을 위탁 받고 수령하는 환급대행수수료, 외화 환전 수수료 등이 있다. 1Q19 기준 매출은 수수료수입 94.8 억원, 기타수익(환전, 환급대행) 6.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 과점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국내 택스 리펀드 시장은 상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사업자들간 출혈 경쟁이 줄어들며 리베이트 경쟁, 공격적 환급 청구 입찰, 높은 환급 대행 수수료 등 동사 수익성에 발목을 잡던 요인들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택스리펀드 시장 내 주요 사업자는 동사, 글로벌블루를 포함한 3~4개 회사로 압축되었는데 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향후 경쟁 강도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사는 지난 3월 경쟁사 케이티스의 택스리펀드 사업부문을 양수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약 10%p(50%→60%) 상승, 타사업자들과의 격차를 벌리며 시장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입국자 수 회복 & 非 중국인 관광객 비중 상승

올해 국내 입국자 수는 2016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중국 단체 관광 중단에 따른 공백은 비중국인 입국자 증가로 상당 부분 메워진 상황이다. 19년 4월 방한 외래관광객은 163.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8% 증가했다. 이는 LCC 노선 확대와 K팝 흥행에 따른 신한류 효과로 동남아, 일본, 베트남 등 비중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동사 중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은 16년 75%에서 현재 52%까지 감소했다. 올해 입국자 수 회복에 비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이는 여행 성수기 시즌인 2~3분기에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또한 방한 외래관광객의 지역 다변화로 단일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글로벌텍스프리 목표주가 추이	투자 의견 변동내역											
				과리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019.6.11	변경	김한경									
	2019.6.11	NR	N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한경)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 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3.2% 6.8%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100.0%	투자 의견 비율은 2018. 4. 1 ~ 2019.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